

언어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 내재적 발전론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허 수**

[초 록]

이 글에서는 계량적이고 거시적 접근을 통하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을 살펴보았다. 역사인식을 나타내는 용어 16개를 선정하여 이 용어들의 빈도 양상과 이 용어가 중심이 된 연결망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근대사 서술과 근현대사 서술 사이에는 사용되는 용어의 종류와 빈도의 분포 등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연결망 구조를 볼 때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제3기에 이르러 ‘민족’, ‘독립’, ‘운동’, ‘전개’를 핵심으로 하는 연결망이 근대 사회 운동의 맥락에서 ‘사회’ 및 ‘농민’과 접속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연결 관계를 ‘내재적 발전’에 근거를 둔 역사인식의 핵심 구조로 판단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부교수

주제어: 네트워크 연구, 한국사 교과서, 역사인식, 연결망 구조, 내재적 발전
Network Research, Korean History Textbook, Historical Recognition, Network Structure, Internal Development

했다. 결국, 교과서에서 내재적 발전론의 역사인식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 등장하여 제5차 교육과정에서 확고하게 정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1. 머리말

이 글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이하 ‘교과서’로 약칭한다.)에 내재된 역사인식을 살펴본 연구이다.¹⁾ 역사인식이라는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의 합의된 결론이 없지만,²⁾ 이 글에서는 역사인식을, ‘과거의 사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과 논리 체계’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과거에 대한 해석은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판단과 맞물려 있으므로, 역사인식은 현실인식의 뿌리이자 가치관 형성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교과서의 역사인식은 공교육 체계를 통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학습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교과서 역사인식에 대한 탐구는 역사교과서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³⁾ 이 탐구 방법은 다시 ‘내용과 역사연구의 관계’, ‘사관과 이데올로기’, ‘텍스트 분석’으로 세분된다.⁴⁾ 앞의 두 분야는 각각, ‘교과

-
- 1) 실제 교과서 제목에는 대부분 ‘국사’로 표기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자국사’라는 형식적 의미가 강조되는 ‘국사’ 대신,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을 담은 내용적 표현으로 생각되는 ‘한국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2) 역사인식, 역사의식 등에 관하여 최근 역사교육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송상현(2017), 『역사 인식의 논리와 역사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방지원(2012), 「역사교육에서 ‘역사의식’ 연구의 추이와 전망」, 『역사교육연구』 16, 한국역사교육학회 ; 김한중(2010), 「역사교육 개념어의 용례 검토 : 역사적 사고, 역사해석, 역사인식, 역사의식」, 『역사교육』 113, 역사교육연구회; 김한중(2005),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 3) 김한중은 역사교과서 연구의 방법으로 ‘교과서 기초 연구’, ‘교과서의 역사인식’, ‘교과서 비교 연구’, ‘교과서의 교육적 효용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김한중(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pp. 508-509).
 - 4) 김한중(2006), pp. 508-509.

서가 한국사 연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와 '교과서 내용의 이념적 성향은 어떠한가'를 화두로 삼는다. 그런데 역사인식이 항상 표면적인 서술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 분석'은 '내용 선택, 서술 방식, 문체 등을 통해 은연 중에 표현되는' 역사인식을 다룬다.⁵⁾

이 글에서 필자가 수행하는 탐구는 텍스트 분석에 해당한다. 다만, '저자'의 숨은 의도보다는 내재된 '의미' 구조를 해명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이는 역사적 주체 못지않게 언어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개념사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지만, 자료의 특성상 교과서의 역사인식은 저자의 집필 의도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⁶⁾ 텍스트 분석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단어의 사용빈도를 살펴 관련 의미의 소장(消長)을 가늠하는 계량 언어적 분석과, 단어의 연결망(network)을 통해 의미의 연쇄 구조를 드러내는 언어 네트워크 연구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역사인식이라는 추상적 범주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을 경험적 연구 대상으로 끌어내려면 대상의 경계 설정과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첫째, 살펴볼 역사인식을 '내재적 발전론'으로 특화한다. 그것이 해방 후 한국사 분야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역사인식이기 때문이다. 그 인식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을 제1차 교육과정에서 2011 교과 교육과정까지 사용된 8개의 교과서로 확장하였다.

교과서와 내재적 발전론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선행연구의 언급이 있

5) 김한중(2006), pp. 508-509. 김한중은 1990년대 이후의 연구경향을 언급하면서, “국사교과서 내용에 나타난 저자의 역사관이나 역사해석에 대한 논의는 종종 있었지만, 내용과 문장 표현을 종합한 텍스트로서 국사교과서 서술에 내포된 저자의 관점을 검토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김한중(2006), p. 543).

6)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특정 사회의 신념과 가치를 압축·요약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문서”이며, “교과서는 수많은 시대적 요구와 지지가 수렴된 결정체로서 모든 사회적 에너지가 반영된 미래의 설계도”이다(김선규·김인식·최호성(2000), 『남북한 국사교과서 분석』, 교육과학사, p. 2, 39).

었다. 제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하여, 김한중은 ‘내재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조선후기 사회변화를 자세히 서술하고, 19세기 이후 민족의 수난사와 투쟁사를 보강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⁷⁾ 자신이 집필에 참여한 최완기는 제5차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기층 사회의 움직임과 인과론적 내재적 발전론에 주목하였다’고 자평하였다.⁸⁾ 그렇지만 김한중에 따르면 두 교과서의 ‘역사인식은 1970년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거나, 내재적 발전론에 의한 ‘내용 변화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한계를 가졌다.⁹⁾

이상의 평가는 내재적 발전론의 영향이 제4차와 제5차 교과서에서 비로소 드러난 사실을 환기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그 이전 교과서와의 차이나 두 교과서 상호간의 차이 등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니다. 이런 분석을 하려면 장기적 시야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 점은 다음에서 살필 내재적 발전론의 지표 설정 문제와 관련된다.

둘째, 이 글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의 역사인식을 고찰하는 매개물로 ‘역사인식 용어’라는 층위를 설정하였다. 최근 한국학계에서는 사학사 연구나 근대 지식의 형성 탐구라는 맥락에서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¹⁰⁾ 이 연구들은 내재적 발전론의 사학사적 계보와 이론

7) 김한중(2015), 「국가교육 강화와 국가주의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Humanist, p. 202.

8) 최완기(1990),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구성과 특성」, 『역사교육』 48, 역사교육연구회, p. 189. 최완기는 이 글에서 자신이 조선후기 부분을 집필하면서 이 시대를 “‘근대 사회의 태동’이라는 흐름으로 파악”하였음을 밝혔다(최완기(1990), p. 188).

9) 김한중(2015), p. 202, 218.

10) 내재적 발전론의 형성과정이나 비판적 계승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다음의 성과가 주목할 만하다. 김인걸(1997), 「1960,7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사학」,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김용섭 교수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김정인(2016), 「식민사관 비판론의 등장과 내재적 발전론의 형성」, 『사학연구』 125, 한국사학회; 박찬승(2007), 「한국학 연구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의 — 내재적 발전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이영호(2011),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연구』 152, 한국사연구회; 신주백

적 기반, 성격 규정, 민중사학과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입장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사에 대한 ‘주체적·내면적 이해’ 혹은 ‘주체적·발전적 파악’ 등이 내재적 발전론의 주요 속성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오히려 교과서의 서술에는 그와 같은 속성들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역사인식 용어’는 내재적 발전론을 지표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한국사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유용하면서도 선사시대에서 현대사에 이르는 통사(通史)적 차원과, 제1차 교육과정에서 2011 교과 교육과정까지 두루 사용될만한 용어들에 주목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는 교과서의 역사인식을 내재적 발전론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역사인식 용어’라는 지표와 계량 언어적 분석 및 네트워크 연구 방법을 활용한 거시적 탐구가 될 것이다. 역사인식의 형성과 이해에 교과서를 둘러싼 컨텍스트적 맥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발전론의 부침(浮沈)을 텍스트의 의미 구조 차원에서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2. 분석의 주요 마디와 ‘역사인식 용어’

2.1. 교과서 선택과 분석의 주요 마디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과서의 면면과 서지사항은 [표 1]과

(2013), 「1950년대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동북아시아에서 지식인의 내면적 교류 — 관점과 태도로서 ‘주체적·내재적 발전’의 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0, 한국사연구회; 신주백(2014), 「관점과 태도로서 ‘내재적 발전’의 형성과 1960년대 동북아시아의 지적 네트워크」, 『한국사연구』 164, 한국사연구회.

같다. 분석 방법으로 채택한 계량 언어적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연구는 모두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접근에 기반을 두므로, 본 연구는 교과서들의 전산 자료 확보로부터 출발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제7차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까지에 해당하는 국정 교과서 다섯 권은, 해당 자료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직접 제공받았다. 제1차 교육과정 교과서(이하 ‘제1차 교과서’로 줄임)와 제2차 교과서, 그리고 제7차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및 2011 교과 교육과정의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PDF의 형태로 된 자료를 텍스트로 전환하였다.¹¹⁾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의 서지사항

표시	해당 교육과정	교과서 서지사항	비고
v1	제1차 (1954~1963)	홍이섭(1957), 『우리 나라 문화사(고등 국사)』	검정
v2	제2차 (1963~1973)	문교부(1968), 『고등학교 국사』	검정
v3	제3차 (1973~1981)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79), 『고등학교 국사』	국정
v4	제4차 (1981~1987)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82), 『고등학교 국사 (상)』 上同, 『고등학교 국사 (하)』	국정

11) 제1차 교과서에서 제7차 한국사 교과서까지는 PDF 원문과 전산 자료가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front>)에서 서비스되고 있어서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다. 제7차 근현대사 교과서와 2011 교과 교과서는 검정제 하에서 발행되어 여러 종의 교과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성출판사 교과서만 살펴본 것은 여러 종의 교과서를 함께 살펴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요 교과과정별로 하나씩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선 고교에서 채택률이 가장 높았던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고르게 되었다. 50퍼센트 정도의 채택률을 차지하던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와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 변경 등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고할 만하다. 김정인(2015), 「뉴라이트의 등장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파동」,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Humanist, pp. 259-264.

표시	해당 교육과정	교과서 서지사항	비고
v5	제5차 (1987~1992)	국사편찬위원회, 1중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90), 『고등학교 국사 (상)』 上同, 『고등학교 국사 (하)』	국정
v6	제6차 (1992~1997)	국사편찬위원회, 1중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96), 『고등학교 국사 (상)』 上同, 『고등학교 국사 (하)』	국정
v7	제7차 (1997~2007)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2006), 『고등학교 국사』	국정
		김한중 외(2003),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검정
v8	2011 교과(*)	김종수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검정

‘표시’란의 ‘v1’은 ‘version 1’의 약자로, 제1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가리킨다. 이후 표나 그래프에서는 이 표기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의 정식 명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수집한 교과서 자료를 본격적인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작업을 하였다. 동일한 비교를 돕기 위해서이다. 첫째, 교과서 내용 구성상의 편차를 조정하였다. 초기 교과서에 비해 후기 교과서로 갈수록 내용 배치 및 구성 형식이 다양해져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교가 어려웠으므로 분석 대상을 본문으로 제한하였다.¹²⁾

둘째, 7차 한국사 교과서의 순서를 크게 재구성하였다. 7차 한국사 교과서는 이전과 달리 분류사 형식을 하고 있다. 전체 내용을 정치·경제·사회·문화로 크게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선사시대에서 현대사까지 관련 내용을 다룬 것이다. 그 이전 교과서와 체재를 통일하기 위하여 이러한 분류별 구성을 시대별 구성으로 재편하였다.

셋째, 7차 한국사 교과서와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검정 근현대사 교과서를 통합하여 여타 교과서와 동일한 통사 체제를 갖추었다.¹³⁾ 이렇게

12) 각주 내용과 본문의 용어 설명, 본문 우측의 박스(box) 내용, 특집, 연습문제 등은 제외하였으며, 본문 앞의 개요는 포함시켰다.

13) 제7차 국정 교과서는 조선후기까지의 내용이 중심이면서도, 개항기와 그 이후의 역사를 짧게 수록하고 있다. 금성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와 달리 근현대사 내용을

통합한 텍스트를 편의상 앞으로는 ‘7차 교과서’라고 부를 것이다.

한편, 이상의 교과서 자료를 ‘형태 분석’하여 ‘교과서 코퍼스’를 산출하였다. 형태 분석이란, 용어의 빈도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는 교과서 원문의 각 어절을 품사를 기준으로 하는 형태 단위로 세분화하는 작업이다. 형태 분석기로는 울산대의 유태거(UTagger 2016 TCM)를 사용하였다.¹⁴⁾

‘교과서 코퍼스’에는 한국어 통사를 다룬 동일 종류의 텍스트가 교과과정 변화에 따라 8가지 판본(version)으로 존재하는 셈이 된다. 필자는 이 판본 각각을 다시 8개의 시대(period)로 잘게 나누었다. 선사시대(1p), 삼국시대(2p), 고려시대(3p), 조선전기(4p), 조선후기(5p), 개항기(6p), 일제시대(7p), 해방 후(8p)의 구분이 그것이다.¹⁵⁾ 각각의 규모는 [표 2]와 같다. 이렇게 분할된 총 64개의 단위는 ‘역사인식 용어’의 시대별 빈도 분포와 과정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마디가 될 것이다.

다루면서, 그 앞부분에 근현대사를 요약하는 내용을 배치하였다. 이 요약 내용에는 조선후기 역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를 기계적으로 합칠 경우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7차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을 제거하고 금성 교과서의 요약 부분을 제거한 뒤 양자를 통합하였다.

- 14) 교과서 원문에서 동일한 단어라도 교육과정에 따라 띄어쓰기 원칙이 다르게 적용된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다수 사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통일하였다.
- 15) 한국사를 이와 같은 8개의 단위로 구분한 것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의 구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장과 절을 포함하는 더 상세한 목차는 본 논문의 [부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8개의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는 편의상 필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골랐다.

교육과정 시대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서론)			머리말	머리말	머리말	머리말 I. 한국사의 바른 이해
선사시대 (1p)	제II장 선사 시대의 문화 제III장 부족 사회의 문화	I. 우리 역사의 시작과 부족 국가 시대	I. 고대 사회	I. 고대 사회의 발전	I.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	II.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

[표 2] 교과서 코퍼스의 시대별, 과정별 규모 (단위 : 개)

시대 과정	1p	2p	3p	4p	5p	6p	7p	8p	총합계
v1	5,962	12,269	8,059	9,144	10,486	4,897	2,434	617	53,868
v2	3,730	7,962	11,244	8,474	6,683	9,204	5,649	3,944	56,890
v3	5,434	14,251	15,874	21,279	15,846	14,593	8,503	4,714	100,494
v4	4,816	13,844	15,212	21,522	18,065	20,636	10,927	6,275	111,297
v5	7,612	18,322	18,236	24,054	25,567	21,831	13,732	10,998	140,352
v6	8,156	22,374	22,895	21,446	24,509	21,495	22,548	16,486	159,909
v7	8,246	18,537	18,016	17,489	17,198	20,003	21,753	24,596	145,838
v8	5,763	12,267	13,186	8,471	10,135	19,423	19,349	20,177	108,771
합계	49,719	119,826	122,722	131,879	128,489	132,082	104,895	87,807	877,419

표 안의 숫자는 형태분석 결과로 생성된 ‘형태’의 개수이다.

교과과정 시대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삼국시대 (2p)	제III장 삼국 시대 문화 제IV장 통일 신라와 발해의 문화	II. 삼국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I. 고대 사회	I. 고대 사회의 발전	II. 고대 사회의 발전	III. 고대 사회의 발전
고려시대 (3p)	제V장 고려의 문화	III. 고려 시대의 생활	II. 고려 사회	II. 중세 사회의 발전	III. 중세 사회의 발전	IV. 중세 사회의 발전
조선전기 (4p)	제VI장 조선 문화 전기(1392~1592)	IV. 조선 시대의 생활	III. 조선 사회	III. 근세 사회의 발전	IV. 근세 사회의 발전	V. 근세 사회의 발전
조선후기 (5p)	제VII장 조선 문화 후기(1593~1863)			I. 근대 사회의 태동	I. 근대 사회의 태동	I. 근대 사회의 태동
개항기 (6p)	제VIII장 조선 문화 후기(1864~1910)	V. 조선의 근대화	IV. 근대 사회	II. 근대 사회의 성장	II. 근대 사회의 발전	II. 근대 사회의 전개
일제시대 (7p)	제IX장 현대 문화와 우리의 사명	VI. 민주 대한의 발달			III. 민족의 독립 운동	III. 민족의 독립 운동
해방 후 (8p)			V. 현대 사회	III. 현대 사회의 발달	IV. 현대 사회의 전개	IV. 현대 사회의 발전

2.2. ‘역사인식 용어’의 선정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필자는 역사인식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역사인식 용어’라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역사인식 용어’라는 명칭은 ‘역사인식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단어들의 집합’이라는 의미로 붙였다. 해당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선별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역사 이해 및 서술의 단위와 역사적 행위자, 그리고 역사 흐름의 방향과 양상을 망라하는 포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치 공동체’, ‘집합적 주체’, ‘변화와 발전’, ‘충돌과 저항’의 네 범주를 설정하였다. 역사인식이 하나의 구(句)나 문장으로 표현될 경우, 전자의 두 범주는 이러한 진술의 주어 부분에 해당하며 후자의 두 범주는 술어 부분에 대응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우리 민족은 부단한 외침을 극복해 왔다.’라는 명제가 있을 경우, ‘우리 민족은’과 ‘부단한 외침을 극복해 왔다.’가 각각 주어 부분과 술어 부분에 해당한다.

‘정치 공동체’는 역사 전개의 단위이지만 국제관계에서는 행위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치 공동체’는 ‘사람’ 등의 역사적 행위자를 나타내는 ‘집합적 주체’와 함께, 역사인식 명제의 주어 부분을 구성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변화와 발전’ 및 ‘충돌과 저항’이라는 범주는 이러한 주체들의 움직임과 관계가 깊다. ‘변화와 발전’이라는 범주만 두어도 무방하지만, 한국사를 ‘국난 극복사’나 ‘운동사’로 보는 인식도 중요한 비중으로 존재했다고 판단하여 ‘충돌과 저항’이라는 범주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둘째, 특정 사건이나 시기, 그리고 특정 교과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두루 사용되는 보편적 단어를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이런 단어는 거시적 분포와 장기적 변동을 고찰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고유명사나 특정 시대에 편중되는 단어는 제외하였다. 예컨대 ‘정치 공동체’ 범주에서 ‘국가’, ‘나라’ 등은 포함하였으나, ‘고구려’, ‘고려’, ‘조선’ 등

은 제외하였다.

셋째, 특정 단어의 비중이 큰 것에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전체 텍스트에서 특정 단어의 비중과 영향력은 그 단어의 등장 빈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여, 각 범주마다 빈도가 높은 단어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교과서 코퍼스의 전체 단어를 검토하여 16개의 단어를 선별하였다. 선별 과정에서 주로 명사를 후보군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명사는 상대적으로 의미를 가장 명료하고 풍부하게 담고 있는 품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전개하다’·‘전개되다’의 경우처럼 비록 품사는 동사이지만 어간에 한자어로 된 명사를 내포한 동사는 그 명사, 즉 여기서는 ‘전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역사인식 용어’ 설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는 품사가 대명사이지만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단어들의 빈도를 집계한 뒤 교과서 코퍼스 전체에서 빈도가 100회 이상 사용된 것만 추려내었다. 이 용어들을 네 범주별로 구분한 뒤 각 범주별로 빈도가 높은 단어를 네 개씩 선별하였다.¹⁶⁾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16) 100회 이상 사용된 단어 중 선별된 네 개 단어보다 빈도가 낮아서 제외된 단어들 빈도가 높은 것부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 공동체(3개) - 왕조(282), 민국(276), 한반도(242) / 집합적 주체(13개) - 상인(392), 민중(263), 학생(234), 백성(220), 민간(182), 서민(141), 개인(123), 노동자(122), 여성(118), 평민(116), 인간(109), 천민(105) / 변화와 발전(13개) - 성장(549), 변화(394), 확대(292), 개발(247), 개화(246), 계몽(232), 개편(169), 증가(168), 변동(150), 확장(143), 개선(133), 향상(111), 진전(105) / 충돌과 저항(14개) - 침입(311), 탄압(278), 대립(274), 항일(269), 비판(239), 투쟁(225), 혁명(198), 항쟁(194), 공격(187), 대항(151), 갈등(141), 반발(109), 저항(104), 침탈(102). 형태 분석기에 따라서, 그리고 복합명사 속의 단어를 독립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 등에 따라서 단어 빈도에 일정한 편차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네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이상의 단어를 ‘역사인식 용어’의 후보군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으며, 빈도 또한 이 글에서 단어 사용 간의 우열을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네 범주별 ‘역사인식 용어’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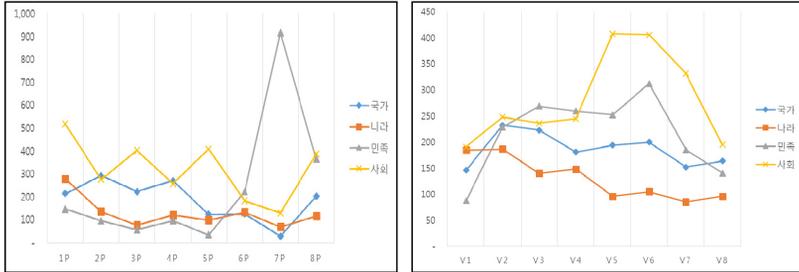
순위	정치공동체	빈도	집합적주체	빈도	변화와발전	빈도	충돌과저항	빈도
1	사회	2,441	우리	1,549	발전	1,284	운동	2,539
2	민족	1,840	농민	1,351	발달	1,001	독립	1,093
3	국가	1,489	사람	625	전개	826	전쟁	797
4	나라	956	국민	525	개혁	779	침략	577
	합계	6,726	합계	4,050	합계	3,890	합계	5,006

3. 전근대와 근현대의 뚜렷한 차이

3.1. 동일한 범주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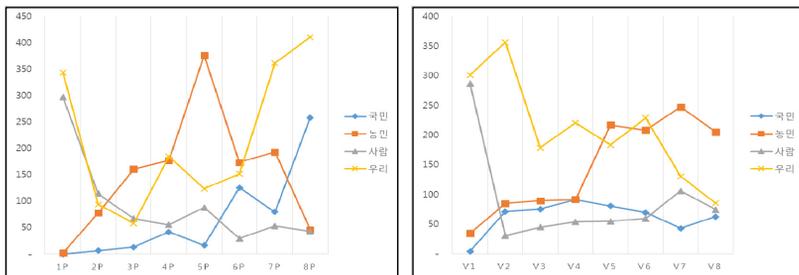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역사인식 용어’로 선정한 16개 단어의 빈도 증감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용어의 분포와 변동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가지고자 한다. 먼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용어들이 각각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면서 특징적인 지점을 짚어볼 것이다. 먼저 ‘정치공동체’에 속한 용어들의 양상은 [그림 1]과 같다.¹⁷⁾

17) 앞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서는 각 과정별로, 그리고 각 시대별로 규모가 상이하다. 그러므로 용어의 빈도를 살펴볼 경우, 시대별이나 과정별, 나아가 64개 단위 간의 비교를 하려면, 단순 집계한 빈도를 비교 가능한 수치로 바꾸어야 한다. 가령 ‘A’라는 단어가 두 단위에서 동일하게 10회 사용되었다고, 형태 개수가 617개인 제1차 교과서의 현대사에서 사용된 10회는, 형태 개수가 24,596개인 제7차 교과서의 현대사에서 나온 10회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합계인 877,419개를 64개로 나눈 평균값으로 각 단위의 규모를 통일하였다. 이 통일 과정에서 적용한 배율을 단순 집계된 빈도에 곱한 값이 정규빈도이다. 앞으로 도표에서 용어의 빈도를 언급할 때에는 이 정규빈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시대별 분포나 과정별 변동을 살펴볼 때에도, 단위를 64개가 아니라 각각 8개로 한 것만 다를 뿐 정규빈도 산출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 1] '정치 공동체' 용어의 시대별 분포(좌)와 과정별 변동(우) (정규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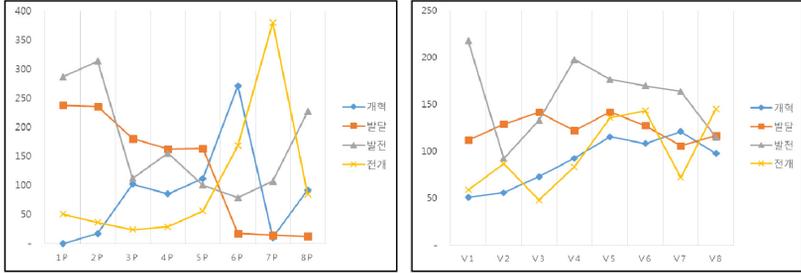
[그림 1]에서는 '민족'과 '사회'의 양상이 주목할 만하다. 왼쪽 그래프에서 '민족'은 일제시대(7p)에 압도적 정점을 보인 점에서 여타의 세 용어와 선명하게 대비된다. 세 용어는 조선후기(5p)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진동하다가 일제시대에 모두 감소한 뒤 해방 후(8p)에 다시 증가하였다. 일제시대에 국권을 상실하였던 상황이 세 용어 사용의 감소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사회'가 제5차 교육과정에서 급증하여 6차까지 고빈도를 지속한 부분이 특기할만하다.



[그림 2] '집합적 주체' 용어의 시대별 분포(좌)와 과정별 변동(우) (정규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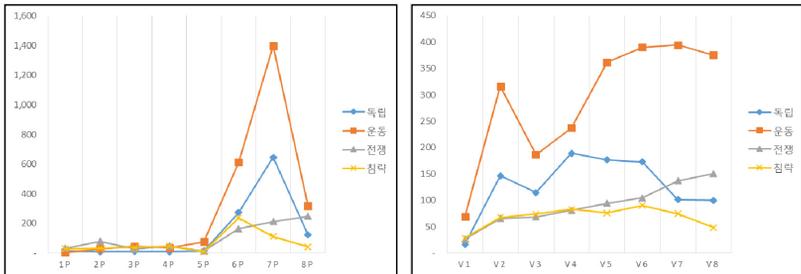
[그림 2]의 '집합적 주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 것은 '농민'이다. '농민'은 조선후기(5p)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제5차 교육과

정에서 급증하여 끝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3] ‘변화와 발전’ 용어의 시대별 분포(좌)와 과정별 변동(우) (정규빈도).

[그림 3]에서 드러나듯 ‘변화와 발전’에서는 ‘발달’과 ‘전개’의 시대별 대비가 주목된다. ‘발달’은 전근대(1p~5p)에 고빈도로, 근현대(6p~8p)에는 저빈도로 분포하였지만, ‘전개’는 그 반대로 전근대에 저빈도, 근현대에는 고빈도 양상을 보였다. 이는 교과서에서 두 용어에 관한 선호도가 시대별로, 특히 전근대와 근현대별로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발달’과 ‘전개’의 빈도가 전근대와 근현대별로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과 달리, ‘개혁’은 고려·조선시대에 중빈도 수준을, 개항기에는 정점을 보이는 것이 특색이다.



[그림 4] ‘충돌과 저항’ 용어의 시대별 분포(좌)와 과정별 변동(우) (정규빈도).

[그림 4]의 ‘충돌과 저항’에서는 네 용어 모두 전근대에는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근현대에는 고빈도 양상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운동’과 ‘독립’은 근현대 내에서 ‘일제시대 > 개항기 > 해방 후’ 순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패턴을 가졌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운동’이 제5차 교육과정에서 급증하여 고빈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기억해 둘만한 동향이다.

이상에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용어들의 양상을 비교하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시야를 16개 용어 전체로 넓히면, 시대별 분포와 과정별 변동에서 각각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유사한 움직임을 가진 용어들이 눈에 띈다. ‘전개’와 ‘운동’, ‘독립’은 일제시대에 정점을 이루며,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에서 고빈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개혁’은 정점을 이룬 시대가 개항기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이 그룹에 묶일 수 있다. ‘민족’은 일제시대에 정점을 이루는 점에서 이 무리들과 흡사하지만, 과정별 변동 양상에서는 급증 구간이 제2차와 제3차, 그리고 제6차에 걸쳐 있는 점에서 좀 구별된다.

한편, ‘사회’와 ‘농민’의 움직임도 서로 유사하다. 둘 다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에서 고빈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후기에 활성화되는 점 등이 비슷하다.

이처럼 ‘전개’, ‘운동’, ‘독립’, ‘개혁’, ‘민족’, ‘사회’, ‘농민’의 7개 용어로부터, 시대별 분포에서 특정한 시기(5p~7p 중 1곳)에 빈도가 높고, 대체로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용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이 글의 4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2. 개별 용어에 대한 패턴 분석

앞 절에서는 ‘역사인식 용어’의 빈도 양상을 범주별 그래프를 통해 고

저(高低)에 유의하여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개별 용어의 빈도 패턴을 분석하여 그 용어가 어느 시대, 어느 과정에서 활성화되었는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건축 설계도에 비유하자면, 용어의 빈도 양상이라는 실체를 전자는 입면도로, 후자는 평면도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자는 용어의 개별적인 빈도 양상을 파악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패턴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용어의 시대별·과정별 양상을 정규빈도로 나타낸 뒤, 평균값 이상을 가진 영역을 음영으로 표시하여 이곳을 그 용어가 활성화된 부분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각 시대마다 과정별 변동이 진행될 때 인접 부분에서 빈도의 급증·급감이 나타났으면 그 양상을 알 수 있도록 해당 부분에 급증과 급감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급증과 급감의 기준은 바로 직전 빈도의 50% 이상이 증감하였는지 여부로 삼았으며 이 표시는 빈도가 활성화된 부분과 그 인접지역에만 적용하였다.¹⁸⁾ 16개 용어 각각에 대하여 이 작업을 수행한 뒤 개괄적 파악에 편리하도록 표현한 것이 [표 4]이다. 여기서는 조선후기와 개항기 사이에 전근대와 근현대를 나누는 선을, 제4차 과정과 제5차 과정 사이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 선을 두어 직관적인 관찰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18) ‘사회’의 양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굵은 실선 테두리는 급증 부분을, 겹선 테두리는 급감 부분을 나타낸다.

사회	1p	2p	3p	4p	5p	6p	7p	8p	총합계
v1	75.9	20.1	8.5	27.0	18.3	8.4	11.3	22.2	191.7
v2	161.7	10.3	13.4	22.6	36.9	19.4	24.3	45.2	333.9
v3	58.0	30.8	59.6	16.8	24.2	24.4	4.8	29.1	247.7
v4	68.3	35.7	54.1	24.8	34.2	19.3	3.8	28.4	268.5
v5	57.6	48.6	89.5	39.9	75.6	35.2	11.0	36.2	393.5
v6	50.4	41.1	65.9	54.3	82.8	35.7	11.6	64.9	406.6
v7	53.2	48.8	35.8	37.6	51.0	21.2	29.6	59.6	336.9
v8	40.4	14.5	33.3	19.4	29.8	5.6	21.3	40.8	205.1
합계	518.4	277.3	404.8	259.5	409.7	184.3	130.7	388.5	2,573.3
								평균	40.21

[표 4] 역사인식 용어의 개별적인 빈도 패턴

사회	민족	국가	나라
우리	농민	사람	국민
발전	발달	전개	개혁
운동	독립	전쟁	침략

가로축의 숫자는 시대(period)를, 세로축의 숫자는 과정(version)을 표시한 것이다.
 # 동일한 시대 내에서 빈도가 직전의 교육과정보다 급증한 부분은 ‘↑’로, 급감한 부분은 ‘↓’로 표시하였다.

[표 4]에서 우선 드러나는 것은 빈도 활성화 지역의 패턴이 가로로 이어지는 것보다 세로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패턴 표에서 세로줄은 특정 시대 전체를, 가로줄은 특정 과정 전체를 나타낸다. 대체로 음영이 가로보다 세로로 길게 이어진다는 것은 각 용어의 빈도 양상이 특정 시대 내에서 과정별 연속성을 더 크게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은 교과서 서술과 발행 자체가 시대별로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구성된 후, 교육과정의 진행에 따라 수정·보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향성 속에서도 용어들 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표 4]의 패턴을 시대별 분포에서 보이는 전근대와 근현대 간의 차이와, 과정별 변동에서 보이는 전반기·후반기 간의 차이에 유의하여 재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표 5] 역사인식 용어의 범주별, 유형별 동향

유형	중심 영역	정치공동체	집합적주체	변화와발전	충돌과저항	합계
시대별 차이	근현대 중심	민족	국민	전개	운동, 독립, 전쟁, 침략	7
	전근대 중심	사회 국가	사람	발전 발달	-	5
	소계	3	2	3	4	12
과정별 차이	전반기 중심	나라	우리	-	-	2
	후반기 중심	-	농민	개혁	-	2
	소계	1	2	1	0	4

전반기는 v1~v4를, 후반기는 v5~v8을 가리킨다.

[표 5]에서 ‘중심 영역’란에 들어간 ‘근현대 중심’ 등의 내용은 대체적인 경향에 따른 분류이다.¹⁹⁾

19) [표 4]의 용어별 패턴은 64개의 단위가 ‘전근대-근현대’ 구분선과 ‘전반기-후반기’ 구분선을 경계로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인접한 두 영역의 음영 수를 합산한 결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중심’ 경향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에는 우상의 ‘전반기-근현대’에 음영이 가장 많다. 이때에는 좌상의 ‘전반기-

[표 5]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역사인식 용어’의 분포는 전근대와 근현대 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16개 용어 중에서 12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민족’, ‘국민’, ‘전개’와 ‘충돌과 저항’ 범주에 속하는 네 개의 용어를 합하여 7개는 근현대에 활성화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근대에 활성화된 용어는 ‘사회’, ‘국가’, ‘사람’, ‘발전’, ‘발달’의 5개이다.

패턴 분포를 앞 절에서 살펴본 범주별 비교 그래프와 결부시켜 살펴보면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 절에서는 ‘정치 공동체’에서 ‘민족’과 나머지 세 용어 간의 차이가 일제시대에 특히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패턴 분포에서도 ‘민족’과 ‘사회’·‘국가’는 전근대와 근현대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대비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집합적 주체’에서는 ‘국민’과 ‘사람’이 시대별로 서로 대비되는 분포를, ‘우리’와 ‘농민’은 과정별로 서로 대비되는 동향을 보인다. 또한 ‘농민’의 동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제5차 교육과정 때의 급증은 조선전·후기와 개항기의 빈도 증가가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변화와 발전’에서는 ‘발달’과 ‘전개’가 각각 전근대와 근현대에 활성화되는 대조적 양상을 재확인할 수 있다. ‘개혁’의 경우에도 고려·조선 및 개항기의 집중적 분포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패턴 분포에서는 후반기의 빈도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과, 제7차 교육과정의 증가가 고려시대와 현대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이 새롭게 파악된 사실이다.

넷째, ‘충돌과 저항’ 용어들이 근현대에 집중 분포되는 현상도 앞 절의 범주별 비교에 이어 재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운

전근대’ 음영이 5개, 우하의 ‘후반기-근현대’의 음영이 4개이므로 우상과 좌상을 합친 부분을 중심적 경향으로 보아 ‘우리’를 ‘전반기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나라’와 ‘개혁’은 둘 다, 음영 수가 최대인 영역에 인접한 두 곳의 음영 수가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모두 과정별 차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시대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마련인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두 용어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동'의 증가가 주로 개항기의 급증세를 반영한 것임을 추가로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범주별 비교에서는 '운동'을 비롯한 7개의 용어가 갖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동소이하나마 제5차·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활성화와 조선후기~일제시대 중 특정 시대의 활성화 경향이 그것이었다. 패턴 분석을 통하여 이 중에서도 특히 '전개'와 '운동'은 제5차 과정의 개항기에 급증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이 더욱 클 것이 예상된다. 또한 '농민'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조선전·후기 및 개항기에 걸쳐 급증하였다는 점에서, 한편에서는 마찬가지로 시점에 조선후기에 급증세를 보인 '사회'와 유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개', '운동'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관찰은 용어들의 개별적 동향을 나타내는 그래프나 분포에 따른 것이므로 둘 이상의 용어 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용어들의 관계에 관한 파악은 4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민족'과 '운동' 중심의 연결망

4.1. 중심의 변동 : '민족'에서 '운동'으로

3장에서는 '역사인식 용어'의 개별 양상을 살펴보았으나, 용어 상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개별 요소의 속성 값 대신 요소 간의 관계 파악에 유용한 네트워크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연구 방법을 언어와 담론 연구에 적용하는 '언어 네트워크 연구'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도 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역사인식 용어'의 상호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용어들의 연결망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 연결망이란 어떤 대상이나 요소 간의 관계를 단순하게 모델링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그런데 관계를 시각화하려면 관계가 구체적인 수치(value)로 환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건이 되는 것은 ‘역사인식 용어’의 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것인가이다. 예컨대 앞 장에서 살펴본 용어 중 ‘민족’과 ‘전개’의 경우, 둘 다 근현대에 빈도가 높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양자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연결망도 그릴 수 없다. 그런데 언어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두 단어의 관계를 ‘유사도’(類似度, Similarity)라는 지표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두 단어가 텍스트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함께, 그리고 자주 사용될수록 두 단어 간의 유사도를 높게 수치화하는 여러 가지 수식(數式)들이 개발되어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우선, 조금 전에 살펴본 ‘일정한 범위’를 ‘하나의 문장’으로 설정하였다. 두 개의 ‘역사인식 용어’가 동일한 문장에서 함께, 그리고 자주 사용될수록 둘 사이의 유사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특정 문장에서 16개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담은 정보를 입력한 뒤, 연결망 프로그램의 여러 기능들을 활용하면 16개 용어들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얻게 된다. 이때 용어 간의 연결 값은 두 용어의 유사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은 중요한 한계를 가진다. 16개 용어들‘만’으로 구성된 연결망이라서 역사인식의 구조를 나타내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이 글에서는 당초 16개의 용어를 선정하고 그것을 ‘역사인식 용어’라 불렀지만, 그것은 네 개 범주의 상위빈도 4순위까지만 고른, 매우 적은 수의 용어이다. 따라서 이 16개의 용어는 교과서의 역사인식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관찰 포인트가 될 순 있으나, 역사인식에 관한 연결망 혹은 의미의 연쇄를 구성하기에는 턱 없이 적은 어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중적 연결망’이다. 특정 ‘역사인식 용어’가 자신의 공기어(共起語)와 맺는 관계 전체를 하나의 연결망 지도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연결망은 필자가 선정한 ‘역사인식 용어’의 개수만큼 산출 가능하다. 다중적 연결망은 그러한 연결망 16개를 겹쳐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중적 연결망에서 ‘역사인식 용어’들은 그들의 공기

어를 포함하는 풍부한 단어들의 연결망 속에서 상호간의 직·간접적 연결 관계를 드러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전제 위에서 연결망의 산출과 분석에 이르는 주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① 입력 자료 선정 → ② 2항(2-mode) 연결 관계 자료 입력 → ③ 1항(1-mode) 연결 관계로 전환 → ④ 연결망 시각화 → ⑤ 중심성 분석

위의 절차를 과정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과서 코퍼스 중 16개 ‘역사인식 용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선별하여, 문장 속 단어 중 일반명사, 고유명사, 동사를 추출하였다. ② 이 단어들을 정제한 뒤²⁰⁾ ‘1번 문장 — 단어A’, ‘1번 문장 — 단어B’와 같은 2항 연결 형태의 자료로 연결망 산출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이 데이터의 숫자가 너무 많아, 이 상태로는 연결망 지도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육안으로 판독할 수 없게 되므로 입력 자료의 두 번째 항, 즉 단어의 수를 대폭 줄였다. ③ ‘문장 번호 — 단어’로 구성된 자료를 ‘단어 — 단어’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어A와 단어B가 동일한 문장에서 함께 사용된 정도가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유사도로 계산되어 두 단어를 연결하는 링크 값으로 사용된다.²¹⁾ 이 링크 수도 과다하므로 일정 값 이상만 남기고 절삭하였다. ④ 몇 가지 후속 작업을 거쳐 연결망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⑤ 연결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구에서 주로

20) 동사의 경우 2장에서와 동일하게 ‘명사+동사’인 경우에는 명사 부분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이상 사용되면, 그 횟수만큼 빈도를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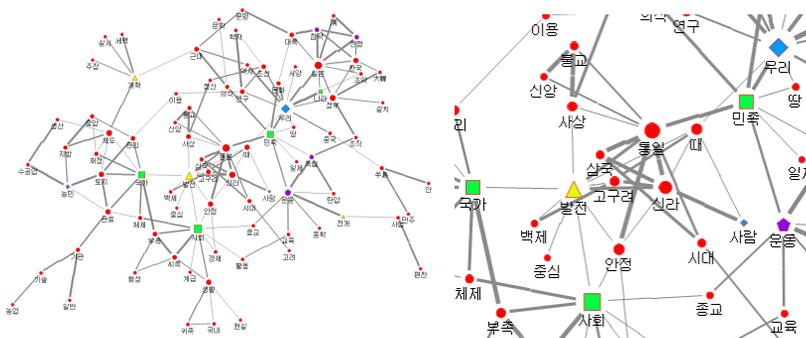
21) 여기서는 코사인 유사도라는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텍스트 분석에서 두 단어의 관계를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이 코사인 유사도 적용과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허수(2016),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1980년대 ‘민중’ — 『동아일보』의 용례를 중심으로 —」, 『개념과 소통』 18, 한림과학원, pp. 66-70.

[표 6] 연결망 산출 기준

연결망 기준	1기 (v1, v2)	2기 (v3, v4)	3기 (v5, v6)	4기 (v7, v8)
문장 수	1,239개	2,586개	4,554개	3,668개
단어 종류(a)	4,859개	4,518개	5,172개	5,220개
노드 수(b) (절삭 기준)	102개 (D ≥ 18)	109개 (D ≥ 41)	108개 (D ≥ 69)	108개 (D ≥ 49)
b/a	2.1%	2.4%	2.1%	2.1%
잔존 링크(c)	2,733개	4,030개	4,292개	3,987개
링크 수(d) (절삭 기준)	143개 (W ≥ 0.1542)	143개 (W ≥ 0.1602)	143개 (W ≥ 0.1517)	143개 (W ≥ 0.1265)
d/c	5.2%	3.5%	3.3%	3.6%

‘노드 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노드를 절삭하고 남은 노드 개수를 말한다. ‘절삭 기준’은 노드를 절삭할 때 적용한 기준이며, ‘D ≥ 18’은 전체 데이터에서 18회 이상 출현한 단어만 남긴다는 뜻이다. ‘잔존 링크’는 절삭된 노드에 연결되어 있던 링크가 삭제되고 남은 링크를 가리킨다. ‘링크 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링크를 절삭하고 남은 링크 개수를 말한다. ‘절삭 기준’에서 ‘W ≥ 0.1542’는 유사도 0.1542 이상의 링크만 남긴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여 산출한 제1기 연결망을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제1기 연결망의 전체(좌)와 주요부(우).

이 연결망에서 노드(Node, 점)는 교과서 코퍼스의 특정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들이다. 대부분 품사는 일반명사와 고유명사 및 일부 동사이며, 모두 ‘역사인식 용어’가 들어 있는 문장에서 쓰인 것이다. 이 가운데 ‘역사인식 용어’에는 네 범주별로 색깔과 형태를 달리 하여 표현하였으며, 이 용어들의 공기어는 빨강고 동그란 점으로 표시했다. 특정 노드에 다른 노드가 많이 연결될수록, 즉 어떤 단어가 자신과 한 문장에서 함께 쓰인 단어가 많을수록 그 노드는 크게 표현된다. 링크(Link, 선)는 두 단어가 같은 문장에서 함께 사용된 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링크가 굵을수록 함께 사용된 횟수가 많다는 뜻이다.

한편, 이 연결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7]처럼 네트워크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심성 분석(Centralit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중심성 분석이란 연결망에서 특정 노드가 가진 중요성을 계산하여 수치화하는 것으로, ‘중요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있다.

[표 7] 제1기 연결망의 세 중심성

구분 순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우리	0.139535	발전	0.34127	우리
2	발전	0.116279	우리	0.332046	발전	0.291598
3	사회	0.116279	민족	0.326996	민족	0.233503
4	통일	0.104651	통일	0.323308	국가	0.224686
5	일본	0.104651	때	0.320896	사회	0.215383
6	국가	0.093023	국가	0.300699	때	0.163333
7	민족	0.093023	신라	0.299652	통일	0.161616
8	운동	0.081395	사회	0.297578	운동	0.144497
9	신라	0.081395	안정	0.289562	관료	0.109377
10	정부	0.069767	운동	0.284768	개혁	0.10673

연결 중심성은 노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지표로,²⁴⁾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가 많을수록 이 값이 높아지므로 특정 노드가 가진 직접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잘 보여준다.²⁵⁾

연결 중심성이 직접 연결된 정도를 나타냄으로써 국지적 차원의 중요성이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면, 근접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연결망의 다른 모든 노드들과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이를 통해 연결망 전체에서 가장 일반적인 영향력을 가진 노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데 유용하다.²⁶⁾

매개 중심성은 연결망에서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을 얼마나 잘 연결시키는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이 값은 그 노드를 통해 연결되는 노드들의 수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크게 나타난다. 매개 중심성 값이 높을수록 해당 네트워크에서 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²⁷⁾

다음으로 이상의 산출과정과 중심성 개념으로 연결망의 시기별 변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기 ~ 제4기 연결망의 개략을 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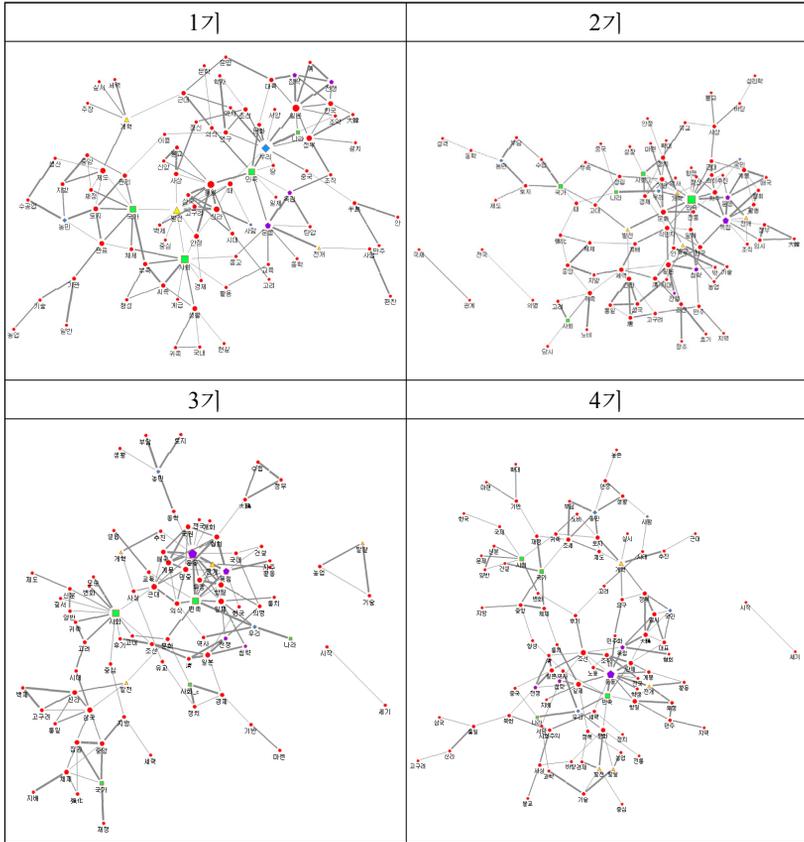
24) 김우주(2015), 『네트워크 중심성 이론』, 카오스북, p. 16.

25) 사이람, 『NetMiner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분석 — 기본 과정 —』, p. 106.

26) 이수상(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p.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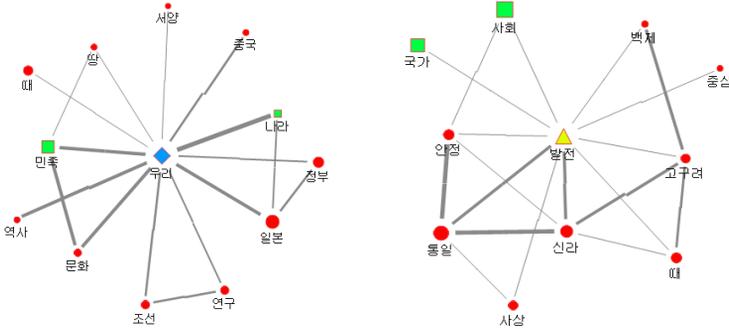
27) 김우주(2015), p. 18; 최수진(2016),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p. 62.

28) 각 연결망의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마지막에 있는 [부표 2]를 참고할 것.



[그림 6] 시기별 연결망 1·2기(위), 3·4기(아래).

제1기 연결망에서 연결 중심성 1, 2위가 ‘우리’, ‘발전’이라는 사실은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연결망에서 자신과 직접 연결된 노드가 가장 많은 것이 ‘우리’이고, 그 다음이 ‘발전’이라는 뜻이다. [그림 7]에서 드러나듯 각각의 연결 노드는 12개, 10개이다.



[그림 7] 제1기 연결망의 연결 중심성 1위와 2위.

이는 곧 제1기에 속하는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에서, ‘우리’나 ‘발전’과 한 문장에서 공기(共起)한 단어가 가장 많다는 의미이다. 물론 [표 6]의 연결망 산출 기준을 상기한다면, 실제 교과서 원문 상의 공기어는 12개나 10개보다 더 많다. 제1기 텍스트에서 18회 이상 사용된 단어 간 연결관계에서 유사도가 상위 5.2%에 들어가는 단어 가운데, ‘우리’와 ‘발전’의 공기어가 각각 12개, 10개라는 뜻이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와 ‘발전’이 다른 ‘역사인식 용어’에 비해 더 많은 단어들과 한 문장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제1기 연결망에서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의 선두 그룹도 연결 중심성의 경우가 거의 비슷하다. 특히 ‘발전’의 근접 중심성이 1위라는 점은 이 용어가 연결망의 다른 모든 노드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발전’과 나머지 101개 단어 하나하나와의 ‘거리’를 모두 합한 것이, 다른 단어를 중심에 두고 거리의 합을 계산한 결과보다 적다는 뜻이다. ‘발전’은 인접 단어와의 연결 정도는 ‘우리’보다 낮지만, 연결망 전체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는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함의를 가진 근접 중심성이, 이 연결망 전체, 즉 ‘역사인식 용어’와 관련된 의미 구조 전체에 대해 가진 담론적 영향력

으로 봐도 좋다고 생각한다.

[표 8] 각 시기 연결망의 중심성 비교

시기 구분 순위	1기			2기			3기			4기		
	연결	근접	매개									
1	우리	발전	우리	민족	민족	민족	운동	운동	사회	운동	운동	운동
2	발전	우리	발전	독립	문화	문화	사회	근대	운동	조선	일제	일제
3	사회	민족	민족	일본	식민지	세력	독립	민족	근대	일제	민족	조선
4	통일	통일	국가	문화	기반	국가	민족	사회	민족	민족	조선	민족
5	일본	때	사회	기반	발전	독립	일제	문화	문화	항일	독립	개혁
6	국가	국가	때	식민지	우리	식민지	근대	독립	발전	大韓	단체	후기
7	민족	신라	통일	자주	독립	발전	계몽	일제	삼국	단체	민주화	국가
8	운동	사회	운동	운동	일본	일본	항일	민중	동학	개혁	침략	사회
9	신라	안정	관료	신라	일제	신라	민중	항일	독립	문화	조직	문화
10	정부	운동	개혁	세력	전통	기반	삼국	투쟁	중심	사회	항일	토지

매개 중심성을 포함하여 이상의 세 중심성은 각각 연결망에서 ‘중심적 역할’의 의미를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면서 연결망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8]의 중심성 결과값을 보면, 이 글에서 도출한 연결망에서는 동일 시기에서 중심성마다 순위(首位)를 다투는 단어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표 8]의 세 중심성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망의 중심을 이루는 단어가 ‘우리’·‘발전’(1기), ‘민족’·‘문화’(2기), ‘운동’·‘사회’(3기), ‘운동’·‘일제’(4기) 순으로 변동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전·후반기의 두 시기를 단위로 관찰하면 전반기(1, 2기)의 중심성은 ‘민족’을 순위로, 후반기(3, 4기)의 중심성은 ‘운동’을 순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를 좀 더 동태적으로 표현하자면, ‘민족’이 제1기에는 3~7순위에 있었고, ‘운동’의 순위가 제3기보다 제4기에 더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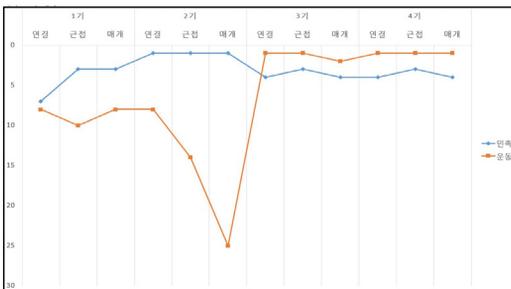
아진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전반기’에는 ‘민족’이 중심적 위치로 상승했고, 후반기에는 ‘운동’이 중심적인 단어로 정착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4.2. ‘민족’·‘운동’과의 거리 단축

4장 1절에서는 ‘역사인식 용어’를 둘러싼 연결망에서 ‘민족’과 ‘운동’이 중심적인 용어로 대두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중심 용어와 여타 ‘역사인식 용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연결망 구조와 변동이 가진 함의를 좀 더 폭넓게 파악해 보기로 한다.

[그림 5]의 ‘주요부’ 연결망으로 되돌아가면, ‘우리’에서 출발하여 ‘삼국’에 이르는 최단 경로는 ‘우리-민족-통일-삼국’이다. 이때 ‘삼국’은 ‘우리’로부터 3단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것을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노드 ‘우리’와 ‘삼국’ 사이의 연결거리는 3이다.”라고 표현한다. ‘연결거리’는 줄여서 ‘거리’라고도 부른다. 연결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두 노드는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성이 높다고 간주된다.³⁰⁾ 연결거리 개념에 담긴 그러한 측면을 이 글의 분석에 적용한다면, 두 단어의 연결거리가 짧을수록 그 단어들은 역사인식에 관한 담론에서 의미상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29) ‘민족’과 ‘운동’만으로 시기별 중심성 순위 변동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0) 이수상(2012), pp. 237-238.

[표 9] ‘민족’·‘운동’과 여타 ‘역사인식 용어’ 사이의 시기별 거리 변동

‘민족’						‘운동’							
범주	용어	1기	2기	3기	4기	평균	범주	용어	1기	2기	3기	4기	평균
정치	사회	3	5	3	5	4	정치	사회	1	6	2	4	3.25
	국가	3	4	5	4	4		민족	1	1	1	1	1
	나라	2	2	2	2	2		국가	3	5	6	4	4.5
집합	우리	1	1	1	1	1	집합	나라	2	3	3	3	2.75
	농민	5	6	3	6	5		우리	2	2	2	2	2
	사람	3	-	-	6	4.5		농민	5	7	2	5	4.75
	국민	-	2	-	4	3		사람	4	-	-	5	4.5
변화	발전	2	2	2	2	2	변화	국민	-	3	-	3	3
	발달	-	2	-	2	2		발전	3	3	3	3	3
	전개	2	2	1	1	1.5		발달	-	3	-	3	3
	개혁	3	3	3	4	3.25		전개	1	1	1	1	1
충돌	운동	1	1	1	1	1	충돌	개혁	4	2	2	3	2.75
	독립	1	1	1	2	1.25		독립	1	1	1	1	1
	전쟁	3	3	2	2	2.5		전쟁	4	4	2	2	3
	침략	3	2	2	2	2.25		침략	4	3	2	2	2.75
전체	평균	2.46	2.57	2.17	2.93	2.53	전체	평균	2.69	3.14	2.25	2.8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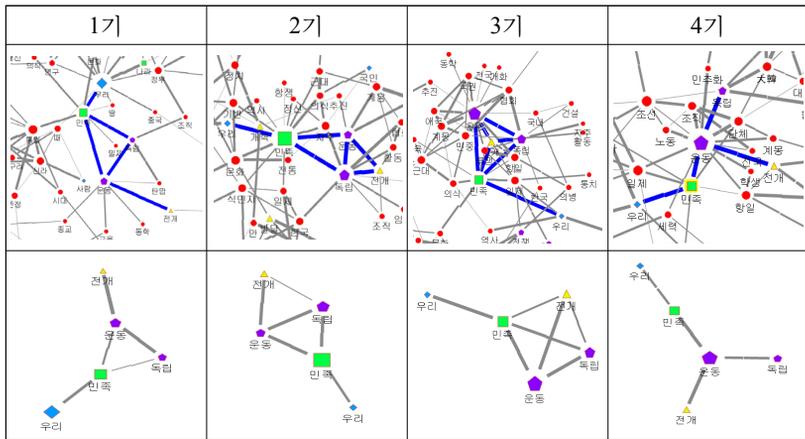
‘-’ 표시는 해당 연결망에 용어가 등장하지 않아 거리가 산출되지 않은 경우이다.
 음영으로 된 칸은 용어별 평균거리가 전체 평균 거리 이하인 경우이다.

[표 9]는 ‘민족’ 및 ‘운동’과 여타 ‘역사인식 용어’ 간의 거리를 시기별로 측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평균 거리의 측면에서 ‘민족’과 ‘운동’은 ‘정치 공동체’ 및 ‘집합적 주체’ 소속 용어에 대하여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변화와 발전’ 및 ‘충돌과 저항’ 소속 용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민족’과 ‘운동’이 시종일관 거리 1로 직접 연결되는 가운데, ‘민족’은 ‘우리’와 1로, ‘나라’와 2로 연결되어 전체 평균거리 2.53을 크게 밑돈다. ‘운동’도 ‘우리’와는 평균 2로, ‘나라’와는 2.75로 연결되어 평균거리 2.75 이하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변화와 발전’ 및 ‘충돌과 저항’의 용어에 대하여, ‘민족’은 ‘개혁’을 제외한 7개의 용어와 전체 평균 이하로 가깝게 연결되는 반면, ‘운

동’은 가깝게 연결된 용어가 4개에 불과하다.

이 특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이 글의 2장 2절에서 ‘역사인식 용어’를 규정하면서 언급하였듯이 역사인식 명제가 지니는 의미의 층위에서, ‘정치 공동체’와 ‘집합적 주체’는 역사인식 명제의 주어 부분에, ‘변화와 발전’과 ‘충돌과 저항’은 술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민족’과 ‘운동’이 중심이 되는 역사인식 명제를 상정할 때, 주어 부분의 핵심은 ‘우리’, ‘민족’, ‘나라’ 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족’은 술어 부분의 용어들과 대부분 긴밀한 관계로 사용되었다. 술어 부분의 용어 중에 ‘운동’은 ‘전개’ 및 ‘독립’과 매우 밀접하게 사용되었으나, ‘발전’·‘발달’·‘전쟁’과는 그다지 자주 쓰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결망의 두 중심인 ‘민족’ 및 ‘운동’과 각각 거리 1의 직접적인 연결관계를 가지며 지속된 ‘역사인식’ 용어를 연결망 지도로 표시하면 [그림 8]과 같다.³¹⁾



[그림 8] ‘역사인식’ 용어 중 ‘민족’ 혹은 ‘운동’과 거리 1로 연결되어 지속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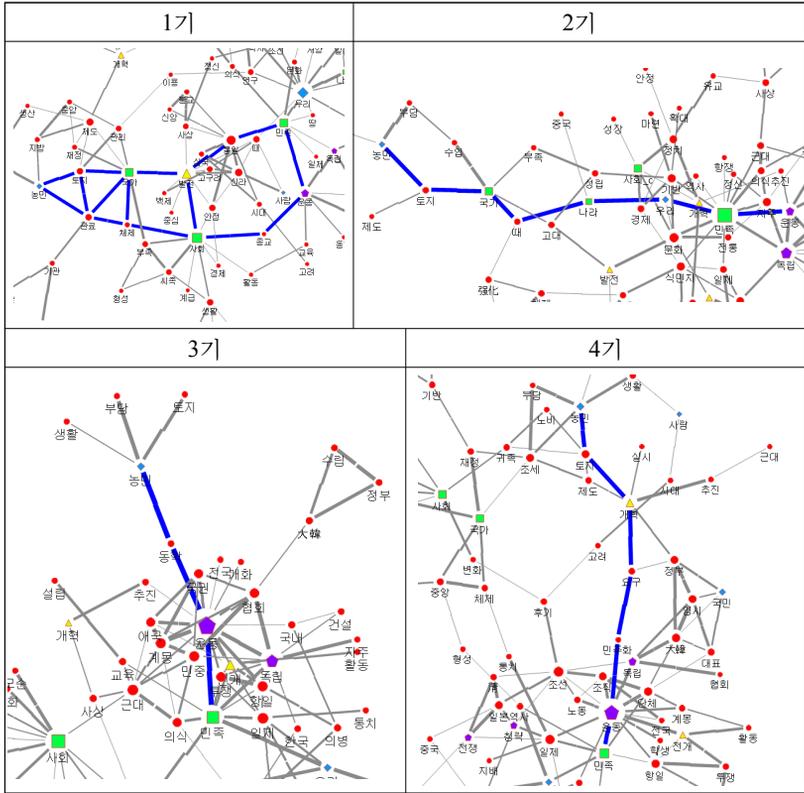
31) [그림 8] 상단의 연결망에서 보이는 굵고 진한 선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 경우 선(링크)의 본래 굵기는 무시하였다. 이하의 연결망 표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서는 ‘우리-민족-운동’의 연결관계가 강고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중요한 변화도 드러난다. 노드 간에 서로 완전하게 연결된 관계(=‘클릭’)가 뚜렷한 부침(浮沈)을 보인다는 사실이다.³²⁾ 제1기에는 ‘민족’, ‘운동’, ‘독립’의 3개 용어로 구성된 클릭이 1개 있었지만, 제2기에는 ‘운동’, ‘독립’, ‘전개’로 이루어진 클릭이 추가된다. 이 용어들 간의 결속은 더 진전되어 제3기에 이르러 ‘민족’, ‘운동’, ‘독립’, ‘전개’의 4개 용어로 이루어진 클릭이 등장하였다. 제4기에는 ‘민족’, ‘독립’, ‘전개’ 간의 연결 관계는 끊어져 클릭은 해체되고 ‘운동’이 삼자를 연결하는 중심이 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찰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2장에서부터 살펴본 ‘역사인식 용어’의 동향과 그것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연결망에서 가장 중심적인 용어는 ‘민족’과 ‘운동’이었는데, 이 두 용어와 거리 1로 직접 연결된 용어들의 결속이 제1기부터 강화되다가 제3기에 절정에 달한 뒤 제4기에는 이완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민족-독립-운동-전개’로 이어지는 역사 서사(敍事), 혹은 역사인식 명제가 초기부터 형성·발전하여 제3기에 해당하는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정점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중간 결론은 [표 9]의 ‘거리 변동’에서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표 9]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민족’과 ‘운동’ 모두 다른 용어와의 전체 평균 거리가 3기에 가장 단축된다는 점이다. 이 표의 용어별 거리 변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러한 단축을 주도한 용어가 ‘사회’와 ‘농민’임을 알 수 있다. 제2기에서 제3기로의 거리 변동을 보면, ‘민족-사회’는 2단계, ‘민족-농민’은 3단계, ‘운동-사회’는 4단계, ‘운동-농민’은 5단계가 단축되었다.

32)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모든 노드가 서로 완벽하게 연결된 것 중에서 가장 최대의 그룹을 ‘클릭’(clique)이라 부른다. 즉 클릭이란 ‘최대 규모의 완전연결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이수상(2012), p. 293).



[그림 10] '민족'·'운동'에서 '농민'까지의 시기별 경로 변화(위 : 전반기, 아래 : 후반기).

상기의 두 그림에서 표시된 경로를 '사회'와 '농민'을 기준으로 재구성하면 [표 10]과 같이 정리된다.

[표 10] '민족'·'운동'과 '사회'·'농민' 사이의 시기별 경로

용어	1기	2기	3기	4기
사회-민족	발전[안정], 통일	귀족, 세력, 지배[일본], 식민지	근대[고대], 의식[문화]	변화, 후기, 조선, 운동

용어	1기	2기	3기	4기
사회-운동	종교	귀족, 세력, 지배[일본] 식민지[한국], 민족[독립]	근대	변화, 후기, 조선
농민-민족	토지[관료], 국가, 발전, 통일	토지, 국가, 때, 나라, 우리	동학, 운동	토지, 개혁, 요구, 민주화, 운동
농민-운동	관료, 체제, 사회, 종교	토지, 국가, 때, 나라, 우리, 민족	동학	토지, 개혁, 요구, 민주화

두 용어 간 최단 연결 경로 중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중간 단계만 표시하였으며, 대괄호 속 단어는 복수의 경로가 존재할 때 그 경우지를 밝힌 것이다.

[그림 9], [그림 10]과 [표 10]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기의 상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기 연결망에서 ‘사회’와 ‘농민’이 ‘운동’ 및 ‘민족’과 연결되는 경로에 근대적 사건이나 단어가 대세를 이룬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제1기와 제2기의 연결망에서 ‘사회’와 직접 연결된 단어들은 대체로 고대와 고려시대에 관한 것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에서 ‘민족’으로 가는 경로에서도 각 경로의 전체 혹은 전반부는 마찬가지로 면모를 보인다. 제3기가 되면 이런 양상은 바뀐다. 비록 단독이 아니라 ‘고대-문화’라는 또 다른 최단 경로와 병존하는 상황이지만, ‘근대-의식’이라는 경로가 생성되었다. 인접 노드의 면면을 볼 때 ‘근대’와 ‘의식’은 모두 근대사의 특정 사건이나 용어에 밀착되어 있다.

‘농민’의 경우도 ‘사회’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동향은 대동소이하다. ‘농민’은 시종일관 ‘토지’와 연결거리 1로 직접 이어진다. ‘농민-토지’와 연결되는 주변 단어를 보면 ‘농민’은 전 시기에 걸쳐 국가의 조세제도나 관료의 급여, 농민 생활 등의 맥락 속에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구별되는 제3기의 가장 큰 특색은 ‘농민’이 ‘운동’과 아주 가깝게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제2기에도 ‘농민-동학’의 연결이 존재했으나 이때에는 ‘운동’과 무관하게 먼 곳에 자리 잡은 데 그쳤다. 제3기에는 ‘운동’과의 거리가 2로 단축될 만큼 가까워졌다. 여기에는 제3기에 들어서 ‘동학 농민 전쟁’에

관한 교과서의 용어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사실도 한몫 했을 것이다.³³⁾

이처럼 연결망과 그 속의 경로 분석을 통하여, ‘농민’과 ‘사회’가 제3기에 들어와서 근대사와 관련한 맥락에서 자주 쓰이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3장에서 ‘역사인식 용어’의 개별 그래프 동향과, 빈도 패턴을 볼 때 제5차 교육과정에서 두 용어가 모두 급증했고 그 증가세를 이끈 부분에서 조선후기(5p)가 중첩되는 양상을 발견하여, 이 시기 두 용어의 긴밀한 연동 가능성을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절에서 살펴본 바로는 제3기에서도 ‘사회’와 ‘농민’이 조선후기 역사서술에서 함께 공기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판단된다. 제3기에 들어와서 ‘사회’와 ‘농민’의 거리가 4로 단축된 것은 ‘운동’ 때문이었다. 이는 ‘사회-농민’의 중간 경로에서도 확인된다. 경로가 ‘체제-관료’(1기)에서 ‘귀족-중앙-強化-때-국가-토지’(2기)로 멀어졌다가 ‘근대-운동-동학’(3기)로 단축될 때, 그 경로 한복판에 ‘운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제4기의 중간 경로는 다시 ‘귀족-토지’로 바뀌면서 연결거리는 한 단계 단축되지만, 내용 면에서는 ‘운동’과 근대사 관련 요소를 탈각하고 제3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였다.

5. 내재적 발전에 근거한 민족사 서술의 정착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도출 가능한 해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에 내재된 역사인식을 살펴

33)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변화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동학혁명’이나 ‘동학혁명운동’이 주류를 이루다가, 제5차 교육과정기부터 ‘동학농민운동’이 등장하여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사용되었다(김한중(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p. 368).

보고자 ‘역사인식 용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 하위에 네 범주를 설정하여 역사인식 명제의 주어부와 술어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우선, 교과서 코퍼스 자료를 교과과정별로 8개, 한국사의 시대별로 8개씩 분할한 총 64개의 마디를 단위로 ‘역사인식 용어’의 개별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16개의 용어를 범주별로 묶어서 살펴보고, 또 개별 빈도의 패턴을 고찰한 결과, ‘민족’과 ‘사회’는 빈도가 높은 부분이 전자는 대부분 근현대에, 후자는 대체로 전근대에 집중되어 시대별로 대비되었으며, 과정별 변동에서도 ‘민족’은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점이 제1기인데 비해 ‘사회’는 최대의 증가가 제3기에 진행되어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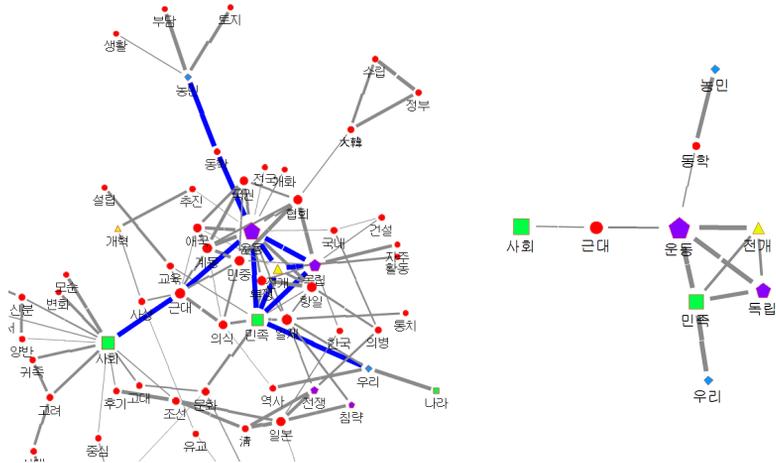
한편, 16개 용어 중에 제3기, 그중에서도 특히 제5차 교육과정에서 빈도가 급증한 유형이 많아서 주목되었다. 이 제5차 교육과정 때 ‘운동’과 ‘전개’는 개항기에 급증세를 보였고, ‘사회’는 조선후기에 급증세를 보여, 이때 두 용어의 동향이 동일 과정 때 조선시대와 개항기 모두에서 급증세를 보인 ‘농민’의 움직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주요 용어의 상호 관계에 관한 이해는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진전시킬 수 있었다. 제1, 제2기를 지나면서 ‘민족’이 연결망 전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3기에는 ‘운동’이 중심이 되어 그 위상이 4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중심에 위치한 두 용어와 여타 용어 간의 거리 및 경유점 등을 살펴본 결과, 제2기와 제3기의 변화는 ‘민족’의 중심적 위치를 ‘운동’이 단순 대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제3기에는 ‘민족’, ‘독립’, ‘운동’, ‘전개’라는 네 단어의 결합도가 절정에 달하였으므로, 오히려 제3기의 동향은 제2기에 전성기를 보인 ‘민족’이 새롭게 급증한 ‘운동’과 서로 긴밀하게 결합한 시기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제3기의 변동을 이 용어들에 국한하여 이해한다면 그것은 제한적인 파악에 그칠 것이다. 제1, 제2기에 연결망 내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위치했던 ‘사회’와 ‘농민’이 각각 연결망의 중심으로 접근하고, 나아

가 ‘운동’을 매개로 가깝게 연결된 것도 주목할 만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 용어들의 연결 경로로 보아 제3기의 거리 단축은 ‘사회’와 ‘농민’이 조선후기 이래의 사회변동과 근대적 의식의 각성 및 주체들의 실천적 운동과 연계되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후기 이래의 사회변동과 근대 민족 독립 운동을 잇는 이러한 역사 인식은 사학사적 연구 성과에서 본다면 ‘내재적 발전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간주할 경우 [그림 11]의 우측에 제시된 제3기 연결망의 일부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근대 민족 독립 운동사 관련 내용과 조선후기 이래의 사회변동과 농민의 실천을 결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재적 발전에 기반을 둔 역사인식의 핵심적인 의미 구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내재적 발전의 역사인식 구조(좌)와 핵심 연결(우) (3기).

제3기에 와서 내재적 발전에 입각한 민족사 서술이 자리 잡는 양상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머리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머리말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이 머리말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도 제5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부연해 보자. 제3차 교육과정에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a) 우리 나라 역사는 우리 민족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b) 긴 역사의 흐름에서 때에 따라서 융성과 침체의 기복을 거듭하기도 한다. (c) 그러나, 역사의 주체인 민족의 뿌리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기사 회생하여 부흥하는 법이다. (d)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공산 집단의 전쟁 도발을 방지하고, 국토 통일과 민족 중흥의 대업을 달성해야 한다.³⁴⁾

여기서는 역사의 주체를 ‘민족’으로 보는 인식이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뿌리를 간직하면 부활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지만, 아직은 ‘발전’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으며, 역사 발전을 사회경제적 변동과 관련지어 파악하는 구조적 이해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인용문처럼 제4차 교육과정의 머리말에는 ‘발전’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a) 우리 나라 역사는 우리 민족이 살아 온 발자취이다. (b) 우리 민족이 독자적인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은 자주와 창조, 그리고 개혁의 정신이다. (c) 때로는 외적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었으나, 우리 조상들은 하나로 굳게 뭉쳐 싸워 이겼다. (d)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발전을 추구하고 온 참모습을 제대로 알며, 역사적 사명인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 역사를 ‘우리 민족이 살아 온 발자취’라 하여 제3차의 서술적 표현보다 더 개념화되었다. 그리고 전에 없던 민족의 ‘발전’

34) 머리말 내용 중 핵심 논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약하였다. 문장 앞의 부호는 요약된 내용을 핵심 정보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필자가 임의로 붙였다.

이라는 표현이 새로 제시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발전의 원동력을 자주, 창조, 개혁 정신으로 꼽았다. 그런데 여전히 이때의 발전은 문화의 발전에 국한되어 사용된 데 그쳐, 발전이라는 용어가 역사인식의 중심적 의미와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힘들다. 다음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제한에서 벗어난다.

(a) 우리의 역사는 민족이 살아 온 발자취로서, 우리 자신이 영위하는 삶의 뿌리이다. (b)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역사적 능력을 계발, 신장하여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c) 따라서 민족사에 대한 인식의 방향은 분명해 진다. 첫째, 민족사는 주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민족사는 발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민족사는 구조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d)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역사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을 제대로 알고, 역사적 사명인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a) 내용은 제4차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과 동일하다. (b)의 경우도 표현은 이전과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가장 큰 차이는 (c)이다. 민족사에 대한 인식 방향을 ‘주체적’·‘발전적’·‘구조적’ 이해로 제시하였다. 제3차 때 제시된 ‘역사의 주체’와 제4차 때 등장한 ‘문화 발전’ 등이 더욱 개념화되고 통일된 형식을 띠고 제시되면서 여기에 ‘구조적’ 이해까지 덧붙여져 더욱 짜임새를 가지게 되었다. 이 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전달 형식 면에서 오히려 조금 산만해진 느낌도 준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역사의식을 간추려 담는 머리말에서도 이 글 4장까지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제3기, 즉 제5, 제6차 교육과정에서 내재적 발전에 기반을 둔 민족사 이해와 서술의 방향이 확고하게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글의 분석 결과와 교과서 머리말에 제시된 역사이해 방향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도 있다. 교과서 머리말에서는 역사의 주체를 민족으로 보면서 민족사를 주체적인 동시에 발전적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 본문에서는 ‘민족’과 ‘운동’을 축으로 하는 민족 독립 운동사 서술이 중심을 이루었다. 여기에 조선후기 이래의 사회변동과 농민들의 활동이 결합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발전’이라는 용어로 수렴되어 널리 사용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운동’ 등에 비하여 낮았다. 연결망에서 ‘발전’은 ‘민족’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통일’(1기)이나 ‘문화’(2~4기)에 의해 매개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머리말에서는 왜 ‘민족’에 ‘운동’을 결부시키는 대신 ‘민족’과 ‘발전’을 연결시킨 것일까. ‘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4차 머리말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로 굳게 뭉쳐 싸워 이겼다.”처럼 서술적 형태로 표현될 뿐이다.

그에 관한 본격적인 해명은 이 글의 고찰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분석 과정에서 얻은 단서로 추정은 할 수 있다. ‘운동’보다 ‘발전’이 ‘민족’이라는 주어의 술어가 되기에는 더 범용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민족’과 ‘운동’의 거리는 1로, 양자는 서로 직접 연결되어 사용된다. 그렇지만 둘의 결합은 시대적으로는 ‘근현대’, 특히 개항기와 일제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근현대사, 특히 근대사에 치우쳐 사용되는 ‘운동’으로 전체 민족사의 술어를 표현하는 데 부담이 없을 수 없다. ‘국가’, ‘사회’, ‘나라’ 등의 ‘정치 공동체’ 용어가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더욱 저조하게 사용된 양상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래서 선호한 용어가 ‘발전’이었다고 생각된다. ‘발전’은 ‘민족’과의 거리가 2로 밀접한 편이다. 또한 시기별 진폭도 있고 근현대에 부진한 편이지만 ‘발달’보다는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있다. 이런 제 요소가 작용하여 ‘발전’이 교과서 머리말에서 중요한 술어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때 ‘발전’이라는 용어에는 ‘운동’이 가진 함의도 충전되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선택은 명료하고 의식

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 보다, 교과서 집필 및 편찬자의 의도와 한국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상식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집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6. 맺음말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어떤 역사인식 아래 서술되었는가를 계량적 접근에 의한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에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1차 자료의 범위와 이 자료를 통해 살펴볼 관찰 대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1차 자료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 그리고 2011년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한국사 교과서 8권이다, 제7차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추가하였다. 이를 비교에 용이하도록 일부 내용을 재구성하고 전체를 교육과정별, 시대별로 각각 8개로 나누었다. 그 후 계량적 분석에 적합한 ‘교과서 코퍼스’로 전환하였다. 교과서 서술이 ‘내재적 발전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 예상하면서, ‘역사인식 용어’라는 지표를 고안하였다. 역사인식이라는 추상적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판단되는 단어를 ‘정치공동체’, ‘집합적 주체’, ‘변화와 발전’, ‘충돌과 저항’의 네 범주별로 분류하고, 각 범주별로 고빈도군 4개씩 선정하여 16개의 ‘역사인식 용어’를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

3장에서는 16개 용어의 개별적 빈도 양상을 범주별 비교 그래프와 패턴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용어의 분포에서 전근대와 근현대 간의 차이가 뚜렷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먼저 범주별 그래프에서 일제시대에는 ‘민족’의 폭증과 ‘사회’·‘국가’·‘나라’의 감소가, 근현대에서는 ‘발달’의 급감과 ‘개혁’·‘전개’의 급증이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충돌과 저항’

에 속하는 네 용어는 모두 전근대에는 극히 저조하다가 근현대에 급증하였다. 과정별 변동에서는 범주를 넘어선 전체 차원의 공통점이 주목되었다. ‘민족’ ‘사회’, ‘농민’, ‘개혁’, ‘전개’, ‘운동’, ‘독립’의 7개 용어가 제5차와 제6차 과정에서 고빈도 양상을 보인 것이다.

한편 16개의 용어 하나하나의 빈도 동향을 ‘패턴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64개로 분할된 정규빈도표에서 평균값 이상을 가진 단위를 ‘활성화 부분’으로 간주하고 이를 음영으로 표시하여 패턴화하였다. 여기서도 전·후반기 차이보다 전근대와 근현대의 차이가 훨씬 두드러졌다. ‘민족’, ‘국민’, ‘전개’, ‘운동’, ‘독립’, ‘전쟁’, ‘침략’이 근현대에 활성화된 데 반해, ‘사회’, ‘국가’, ‘사람’, ‘발전’, ‘발달’은 전근대에 활성화되었다. 이 밖에 제5차 교육과정에서 빈도가 급증한 용어 가운데, ‘농민’은 조선전·후기와 개항기에, ‘사회’는 조선후기에, ‘운동’과 ‘전개’는 개항기에 급증세를 보이는 등, 좀 더 상세한 동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언어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용어 상호 간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았다. 16개 용어가 들어있는 문장에서 그들과 함께 사용된 특정 품사의 단어를 공기어(共起語)로 간주하고, 교과과정을 두 개씩 묶어서 용어와 공기어로 얽혀있는 네 개의 시기별 연결망을 산출하였다. 네트워크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심성 분석(Centrality Analysis) 개념을 원용하여 연결망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제1기와 제2기를 경과하면서 ‘민족’이 연결망의 중심적 위치로 상승하였고, 제3기에는 ‘운동’이 급상승하여 제4기까지 중심적 지위를 지속하였음이 드러났다.

한편 ‘민족’과 ‘운동’이라는 연결망의 중심과 여타 ‘역사인식 용어’ 사이의 관계를 ‘연결거리(distance)’ 개념으로 포착하여 연결망의 변화 양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파악하였다. 우선 ‘역사인식 용어’ 중에서 ‘민족’·‘운동’과 직접 연결된 관계의 동향에 주목하였다. ‘우리’, ‘민족’, ‘독립’, ‘운동’, ‘전개’의 5개 용어 간 연결망은 점차 그 결속을 강화하여 제3기에

정점에 달하였다. 제4기에는 연결망이 이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으로는, 제3기에 두 중심적 용어가 ‘농민’ 및 ‘사회’와 형성한 거리가 급격히 단축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 두 용어와 중심적 용어를 잇는 단어들을 검토하여 제3기에 ‘농민’과 ‘사회’는 근대사의 맥락에서 특히 ‘운동’과 급격히 가까워졌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개별 용어의 동향과 연결망 구조에 관한 분석 결과를 교과서 역사인식이라는, 머리말의 문제의식과 결부시켜 해석하였다. 우선 연결망의 중심이 ‘민족’에서 ‘운동’으로 변화한 양상을, 이 두 용어와 직결된 용어들의 연결관계 변동을 고려할 때, 후자가 전자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민족’과 ‘운동’의 결합관계가 강화되어 간 것으로 재인식하였다. 또한 제3기에 들어와서 ‘농민’과 ‘사회’의 거리가 ‘운동’을 경유하면서 크게 단축되고, 다시 이들이 ‘운동’을 매개로 ‘민족’, ‘독립’, ‘운동’, ‘전개’ 사이에 형성된 완전 연결망에 접합된 양상을 ‘내재적 발전에 기반을 둔 역사인식’의 핵심적인 논리 구조로 간주하였다. 교과서 머리말의 논의를 분석하여 이러한 분석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볼 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내재적 발전’에 입각한 역사인식과 그에 따른 서술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 역사의 주체를 민족으로 보는 인식의 형태로 시작했다가 1987년부터 시작된 제5차 교육과정에 와서 확고한 형태로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인식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몇 가지 주요 지표로 모델링하여 의미 구조를 분석하는 네트워크 연구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인식 용어’ 16개의 선정이 과연 교과서의 역사인식을 탐구하는데 대표성을 띤 표본이 될 수 있는가,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 일부를 동일한 자료군으로 묶는 것이 과연 적실한가 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한계나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나가 고자 한다.

끝으로 이 글의 문제의식과 연구 방법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덧붙일

것이 있다. 기존 연구성과에 따르면 해방 후 한국사 연구에서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이 반영된 개설서로는 1967년에 간행된 이기백의 『한국사 신론』이 대표적이다. 이 통설을 본 연구 결과와 결합시키면, 식민사학 극복과정에서 한국학계가 산출한 ‘내재적 발전’의 역사인식이 한국사 교과서에 안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까. 역사학계의 새로운 인식이 중등 교육 체계에 반영되는 시간적 격차와 경로 등도 향후 도전할 만한 탐구 주제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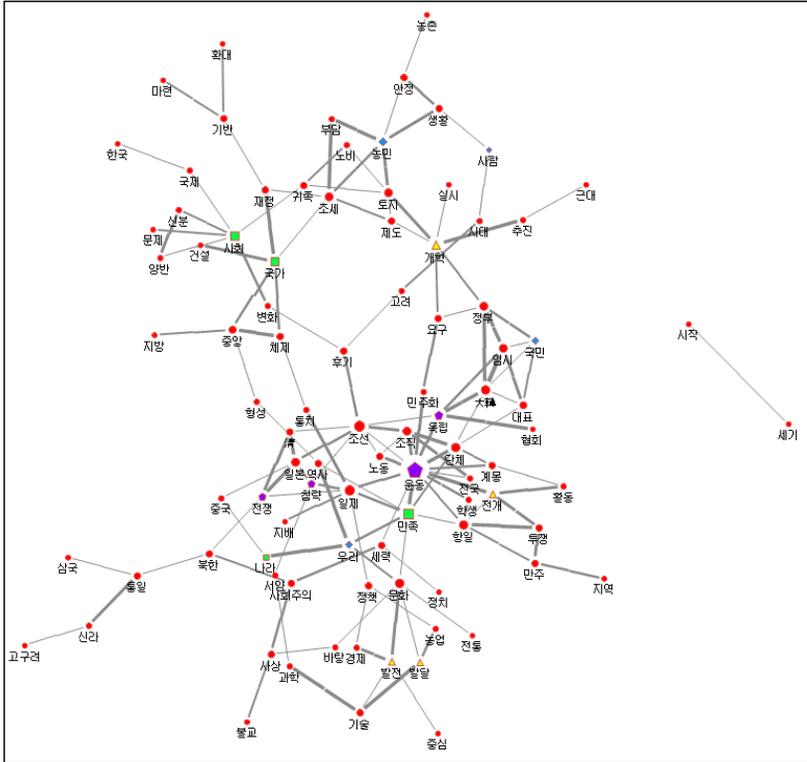
[부표 1] 주요 교육과정 교과서의 목차 비교(제1차~제6차)

교육과정 시대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서론)			머리말	머리말	머리말	머리말 I. 한국사의 바른 이해 1. 역사 학습의 목적 2. 한국사와 세계사
선사 시대 (1p)	제I장 선사 시대의 문화 1. 선사 시대의 유적과 유물 2. 선사 시대의 사회 생활 제II장 부족 사회의 문화 1. 민족 신화 2. 부족 국가의 형성과 분포 3. 부족 사회의 조직과 경제 4. 부족 사회의 신앙과 풍속 5. 한 문화의 영향	I. 우리 역사의 시작과 부족 국가 시대 1. 우리 나라의 원시 사회 2. 우리 민족의 건국과 발전 3. 부족 국가 시대의 생활	I. 고대 사회 1. 선사 시대의 문화 2. 부족 국가의 성장과 그 문화	I. 고대 사회의 발전 1. 우리 역사의 시작	I.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 1. 선사 문화의 전개 2. 국가의 형성과 문화	II.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 1. 선사 문화의 전개 2. 국가의 형성
삼국 시대 (2p)	제III장 삼국 시대 문화 1. 삼국의 성립과 국제 관계 2. 삼국의 정치와 사회 경제 3. 삼국의 학술과 사상 4. 삼국의 신앙과 화랑도 5. 삼국의 예술 제IV장 통일 신라와 발해의 문화 1. 신라의 통일과 민족의 형성 2. 정치와 경제 3. 신앙과 학술 4. 문화와 예술 5. 발해의 변천과 문화	II. 삼국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생활 1. 삼국의 형성과 통일 국가의 출현 2. 삼국 시대의 사회와 문화 3. 통일 신라 시대의 사회와 문화 4. 삼국과 통일 신라 시대의 경제 5. 발해	3. 삼국 시대의 발전 4. 삼국 시대의 사회와 문화 5.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6. 통일 신라의 문화	2. 삼국의 성립과 발전 3. 삼국 시대의 사회와 문화 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II. 고대 사회의 발전 1. 고대 사회의 형성 2. 고대의 정치와 그 변천 3. 고대의 사회와 경제 4. 고대 문화의 발달	III. 고대 사회의 발전 1. 고대 사회의 형성 2. 고대의 정치적 발전 3. 고대의 사회와 경제 4. 고대 문화의 발달

교육과정 시대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고려 시대 (3p)	제V장 고려의 문화 1. 고려의 통일과 변천 2. 고려의 정치와 경제 3. 학술과 문화의 발달	III. 고려 시대의 생활 1. 고려 시대의 정치 2. 고려 시대의 사회와 문화 3. 고려 시대의 경제 4. 고려 시대의 대외 관계	II. 고려 사회 1. 고려의 건국과 국가 체제의 정비 2. 귀족 사회의 발달과 문화의 성장 3. 고려 귀족 사회의 중요 4. 몽고 침략에 대한 항쟁과 고려 말의 정치 상황	II. 중세 사회의 발전 1. 고려의 건국과 귀족 사회의 성립 2. 귀족 사회의 발전과 변동 3. 고려 후기의 사회와 문화	III. 중세 사회의 발전 1. 중세 사회로의 이행 2. 중세의 정치와 그 변천 3. 중세의 사회와 경제 4. 중세 문화의 발달	IV. 중세 사회의 발전 1. 중세 사회로의 전환 2. 중세의 정치적 변천 3. 중세의 사회와 경제 4. 중세 문화의 발달
조선 전기 (4p)	제VI장 조선 문화 전기 (1392-1592) 1. 조선의 성립과 국제 관계 2. 조선의 사회 구성 3. 조선의 정치와 경제 생활 4. 국문의 제정과 문예의 발달 5. 유학의 발전과 불교의 쇠퇴 6. 조선 의과학과 미술 공예 7. 일본의 침입	IV. 조선 시대의 생활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그 발전 2. 경제 생활의 발달 3. 민족 문화의 발달 4. 사회 조직과 정치 혼란 5. 대외 관계와 서양 문물의 전래	III. 조선 사회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발전 2. 민족 문화의 발달 3. 사림의 성장 4. 왜란과 호란	III. 근세 사회의 발전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발전 2. 민족 문화의 발달 3. 사회· 문화의 변동 4. 왜란과 호란	IV. 근세 사회의 발전 1. 근세 사회로의 전환 2. 근세의 정치와 그 변천 3. 근세의 사회와 경제 4. 근세 문화의 발달	V. 근세 사회의 발전 1. 근세 사회로의 전환 2. 근세의 정치적 변화 3. 근세의 사회와 경제 4. 근세 문화의 발달
조선 후기 (5p)	제VII장 조선 문화 중기 (1593-1863) 1. 정치의 문란과 사회 상태 2. 제도의 개편과 경제 생활 3. 실학의 흥기와 학술·문예 의 발달 4. 천주교의 전래와 동학 운동 5. 조선 부흥기의 예술	6. 제도의 개편과 경제 생활의 발달 7. 실학 운동과 문화의 새 동향 8. 세도 정치와 쇄국 정치의 혼란	5.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 6. 문화의 새 기운	I. 근대 사회의 태동 1.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과 대외 관계 2. 문화의 새 기운 3. 사회의 동요와 종교의 새 기운	I. 근대 사회의 태동 1. 근대 사회로의 지향 2. 정치 체제의 변화 3. 경제 구조의 변화와 사회 변동 4. 문화의 새 기운	I. 근대 사회의 태동 1. 근대 사회로의 지향 2. 제도의 개편과 정치 변화 3. 경제 구조의 변화와 사회 변동 4. 문화의 새 기운

교육과정 시대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개항기 (6p)	제VIII장 조선 문화 후기 (1864~1910) 1. 국제 무대에서의 진출 2. 정치 경제의 근대화 3. 교통·통신· 후생 시설 4. 신 교육과 신 사조	V. 조선의 근대화 1. 조선의 개국 2. 개화와 보수의 갈등 3. 조선 말기의 정치·사회 의 변화 4. 외세의 각축과 자주 독립 운동 5. 민족의 자각 운동 6. 근대 기술 문명의 도입 7. 국권의 박탈과 민족의 수난	IV. 근대 사회 1. 민족적 각성과 근대 문화의 수용	II. 근대 사회의 성장 1. 민족의 각성과 근대 문화의 수용 2. 근대 국가의 성립과 시련	II. 근대 사회의 발전 1. 근대 사회의 전개 2. 근대식의 성장과 민족 운동의 전개 3. 근대의 경제와 사회 4. 근대 문화의 발달	II. 근대 사회의 전개 1. 근대 사회로의 진전 2. 근대식의 성장과 민족 운동의 전개 3. 근대의 경제와 사회 4. 근대 문화의 발달
일제 시대 (7p)	제IX장 현대 문화와 우리의 사명 1. 일본의 침략과 민족 운동 2. 민족 문화의 위기	VI. 민주 대한의 발달 1. 일본의 침략 정치 2. 민족의 독립 투쟁 3. 민족의 피어린 문화 운동	2. 민족의 독립 운동과 민족 문화의 수호	3.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4. 독립 운동의 새 단계와 민족 문화의 수호	III. 민족의 독립 운동 1. 독립의식의 성장과 3·1 운동 2.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독립 전쟁 3. 경제· 사회적 저항 운동 4. 민족 문화 수호 운동	III. 민족의 독립 운동 1. 민족 운동의 동향 2. 민족의 시련 3. 독립 운동의 전개 4.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
해방 후 (8p)	3. 대한민국의 성립과 우리의 사명	4. 대한 민국의 수립과 시련 5. 혁명과 발전 6. 우리의 사명	V. 현대 사회 1. 대한 민국의 정통성 2. 민족 중흥의 새 전기 3. 오늘의 역사적 사명	III. 현대 사회의 발전 1. 대한 민국의 정통성 2. 민주주의 발전의 새 전기	IV. 현대 사회의 발전 1. 민주 정치의 발전 2.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3. 현대 문화의 동향	IV. 현대 사회의 발전 1. 현대 사회의 성립 2. 대한 민국의 수립 3.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4.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5. 현대 문화의 동향

제4기(v7, v8) 연결망



참고문헌

【자 료】

- 홍이섭(1957), 『우리 나라 문화사(고등 국사)』, 정음사.
문교부(1968), 『고등학교 국사』,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96), 『고등학교 국사 (하)』,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_____ (1996), 『고등학교 국사 (상)』,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_____ (1990), 『고등학교 국사 (하)』,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_____ (1990), 『고등학교 국사 (상)』,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_____ (1982), 『고등학교 국사 (하)』, 국정 교과서 주식 회사.
_____ (1982), 『고등학교 국사 (상)』, 국정 교과서 주식 회사.
_____ (1979), 『고등학교 국사』, 국정 교과서 주식 회사.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2006), 『고등학교 국사』, 두산동아(주).
(이상은 「우리역사넷」의 ‘역대 국사교과서’ 수록 자료를 참조.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a/main.do>)
김한중 외(2003),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김종수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논 저】

- 김선규·김인식·최호성(2000), 『남북한 국사교과서 분석』, 교육과학사.
김우주(2015), 『네트워크 중심성 이론』, 카오스북.
김인걸(1997), 「1960,7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사학」,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김용섭 교수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김정인(2016), 「식민사관 비판론의 등장과 내재적 발전론의 형성」, 『사학연구』 125, 한국사학회.
_____ (2015), 「뉴라이트의 등장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파동」,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Humanist.
김한중(2015), 「국사교육 강화와 국가주의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Humanist.

- 김한중(2010), 「역사교육 개념어의 용례 검토 : 역사적 사고, 역사해석, 역사인식, 역사의식」, 『역사교육』 113, 역사교육연구회.
- _____ (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 _____ (2005),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 박찬승(2007), 「한국학 연구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의 — 내재적 발전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방지원(2012), 「역사교육에서 ‘역사의식’ 연구의 추이와 전망」, 『역사교육연구』 16, 한국역사교육학회.
- 사이람, 『NetMiner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분석 — 기본 과정 —』.
- 송상현(2017), 『역사 인식의 논리와 역사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주백(2014), 「관점과 태도로서 ‘내재적 발전’의 형성과 1960년대 동북아시아의 지적 네트워크」, 『한국사연구』 164, 한국사연구회.
- _____ (2013), 「1950년대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동북아시아에서 지식인의 내면적 교류 — 관점과 태도로서 ‘주체적·내재적 발전’의 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0, 한국사연구회.
- 이수상(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 이영호(2011),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연구』 152, 한국사연구회.
- 최수진(2016),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완기(1990),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구성과 특성」, 『역사교육』 48, 역사교육연구회.
- 허 수(2016),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1980년대 ‘민중’ — 『동아일보』의 용례를 중심으로 —」, 『개념과 소통』 18, 한림과학원.

원고 접수일: 2018년 1월 16일

심사 완료일: 2018년 1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월 31일

ABSTRACT

Historical Recognition of Korean History Textbooks
in High School through Linguistic Network Research:
Focusing on the Meaning Structure of the Internal Development Theory

Hur, Soo*

In this paper, the historical recognition of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was examined through a quantitative and macro approach. Sixteen terms representing historical recognition were selected, and the frequency of these terms and the structure of the network centered on these terms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identify a remarkable difference in terms of the types of terminology used and the distribution of frequencies between the pre-modern and modern history descriptions. In addition, when we look at the structure of the network, we can see that in the third period, the network of ‘min-jog’ (nation), ‘dog-lib’ (independence), ‘un-dong’ (movement) and ‘jeon-gae’ (development) was connected with ‘sa-hoe’ (society) and ‘nong-min’ (peasant) in the context of modern social movements. The connected relationship thus formed was judged to form the core structure of historical recognition based on ‘internal development’.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historical recognition of the internal development theory in textbooks appeared in the third curriculum and was firmly established in the fifth curriculum.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